

관광객 300만시대 넘어 500만시대 연다

군산시, 고군산관광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새로운 축제콘텐츠 개발 등 기반 구축 총력

명품 관광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군산시가 적극적인 관광홍보마케팅과 시간여행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반으로 2017년 10월말 기준, 관광객 수가 317만명(작년 동기 방문자 184만명, 72.4% 증가)을 기록하며 올해의 목표치인 300만명을 넘어섰다.

근대역사박물관과 고군산군도를 찾은 관광객은 각각 76만1,000명, 14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으며, 철새조망대와 청암산으로 캠프장, 테디베어 박물관 등을 포함한 유료 입장객도 85만명이 다녀가 꾸준한 관광객 유치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업 불황 등 지역 내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총 1,800여억원의 소비지출 경제효과가 발생하여 관광산업이 군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등 공신임을 증명했다. (*전북연구원, 2015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 중 군산시 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금액 5만7,042원)

군산시를 찾는 관광객 증가의 주된 요인은 ▲과감하고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시간여행마을과 고군산군도를 연계한 1박2일 시티투어 출시 ▲다수의 주민참여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구성 내용으로 많은 관광객들로 부터 내년에도 다시 찾고 싶은 축제라는 호평을 이끌어낸 2017 군산시 시간여행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고군산



군산시가 적극적인 관광홍보마케팅과 시간여행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반으로 2017년 10월말 기준, 관광객 수가 317만명(작년 동기 방문자 184만명, 72.4% 증가)을 기록하며 올해의 목표치인 300만명을 넘어섰다.

군도 근대로의 시간여행을 떠나볼 수 있는 근대역사박물관과 시간여행마을 등 각 관광자마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군산만의 매력은 전국 방문객들의 마음을 끌어낸 결과가 관광객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근대역사박물관을 포함한 시간여행마을에는 전국최초로 무선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 플랫폼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관광객들에게 자유로운 검색 기능을 강화시켜

출형 스마트 관광을 가능하게 한 점도 개별관광객 증가 추세와 더불어 늘어난 관광수요에 정확하게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올 초 목표로 설정한 300만 관광객 유치를 연말이 되기도 전에 조기 달성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이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내년의 관광산업에 대한 당찬 포부도 밝혔다.

먼저 관광마케팅 분야에서는 내년

1월 고군산연결도로의 전면적인 개통에 대비하여 공격적인 고군산관광의 홍보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전북 토달관광 및 2023년 세계잡버리대회의 배후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춰갈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축제콘텐츠의 개발을 통해서 관광객들의 만족도에 한층 더 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 군산시간여행축제가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공적인 관광광역화를 위한 한국관광공사 관광협회 등과 민관관광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우수 관광 콘텐츠를 지속 발굴·육성함과 동시에 다각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을 펼쳐, 하루 더, 한 번 더 찾을 수 있는 떠오르는 관광도시 군산시로 성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성과는 급변하는 관광패턴과 수요 변화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군산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관광마케팅과 관광콘텐츠 개발로 대응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300만 관광객을 넘어 500만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관광종합계획 수립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전국학생선박설계콘테스트 창의상 수상

군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A.C.E(A-Class Engineer)(지도교수 정한구) 팀이 대한조선학회 주최한 제26회 전국 학생선박설계콘테스트 지정과제 부문에서 한국선급 회장상(창의상)을 수상했다.

이 콘테스트는 전국 조선해양공학과를 대상으로 지정과제 및 자유과제 부문으로 나눠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1992년 대한조선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해 시작되어 국내 조선공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다. 올해 참가팀은 전국 13개 대학에서 205명이 각 팀을 이루어 참가했다.

올해 군산대학교는 조선해양공학과 전공 동아체인 'A.C.E(A-Class Engineer)' 소속 재학생 손성준 송해성, 장보라 최수림 김종화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팀이 지정과제 부문에 출품하였다.

콘테스트 지정과제 부문 주제인

300K VLCC(대형 원유운반선)급 선박을 설계하였고, 친환경 선박 컨셉을 고려하여 기존 선박연료와 LNG 연료를 사용하는 이중 연료 엔진을 탑재하는 차별화를 두었다. 특히 3학년 손성준(팀장), 송해성 학생은 조선해양전문인력양성사업단(사업단장 노재규) 소속(전라산업전문인력양성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제-조선학사 2017년 과정) 장학생으로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아 본 대회를 준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본 사업단은 2012년부터 전라북도의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해당 장학생들에게 2년간 등록금 지원은 물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장학 혜택을 추가로 지원하고, 졸업 후 취업을 보장하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기업과 학생에게 매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의회 의장단과 간담회 개최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 논의

7일 오전 정현을 시장과 소병희 시장의 장, 익산시의회 의장단이 익산시 2018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8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향에 대하여 시장의 설명과 함께 시의원들과 토론형식으로 이뤄졌다.

시는 내년에는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와 농정역량 강화로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 확충, 교육사업 지원 지역경제를 위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개선 등 시 역점추진사업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한 양질의 대형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익산시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회 기반을 의의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현을 시장은 "시 역점시책과 지역혁신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원의 자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시의회와 소통의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이에 소병희 의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적시에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익산=정왕원기자

군산시,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서 내년 1월 31일까지

군산시가 저소득층의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자를 내년 1월 31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받는다

에너지 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 유나 LPG 등 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어 지난해 군산시에서는 총 4,535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

자료 본인이나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이나 또는 임신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을 받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1인 가구에 8만4천원, 2인 가구는 10만8천원, 3인 이상 가구는 12만8천원을 지원하며 대상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직접 결제하는 '실물카드'나 도시가스, 지역난

방, 전기요금이 자동적으로 차감되는 '가상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용목 지역경제과장은 "에너지 바우처제도는 동절기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난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관심을 갖고 기한 내 신청하여서 추운 겨울 따뜻한 겨울나기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현재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한 기쁨보일러 사용 89가구에 대해 난방유(등유) 사용 바우처를 지원했으며, 연탄 사용을 신청한 597가구에 대해서도 11월 중 연탄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기자

황등면 '한일식당' 착한가게 2호점 선정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황등면 행정복지센터는 7일 복지사각지대의 소외된 황등면민을 위해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한일식당(대표 김현정)을 익산시 착한가게 희망동행 147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착한가게는 매일 3만원 이상, 매출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다.

한일식당 김현정 대표는 "지역 주민들이 보내주시는 성원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만큼 황등면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나눔에 동참했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황등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정왕원기자

군산시-충남 서천군, 행정협의회 개최

전북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의 2017년 제2차 행정협의회가 7일 군산(세한금권 벤처센터(GSC))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두 지자체의 화합과 상생 그리고 협력을 위한 공동발전 사업을 지속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이날 양 시군은 ▲유료시설 상호 감면 추진 ▲한국지엠 차량구제 홍보 협조 ▲실뱀장어안강망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위한 공동노력 등 총 3가지 협

의안건에 대해서 합의했으며, 앞으로도 협력과 상생발전 관계를 상시 유지하고 양 시군의 상호 이익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사업을 보완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특히 이번 안건 중 양 시군 유료시설 상호감면 추진은 오랜 이웃지자체간 공동 생활권이 조성됨으로써 금강 하류 지역공동체 형성에 한발 더 나아가는 데 의미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판곤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응급 구호품 세트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